

17년 만 등록금 인상, 일부 학생 불만 이어져

대학본부 “학생 교육을 위해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것”

본교 학부 등록금이 17년 만에 2.95% 인상됐다. 등록금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2026학년도 기준 약 14억 3천만 원 규모로 ▲교육 인프라 개선 ▲장학금 확대 ▲학생 지원비 확대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김은주 기획조정처장은 “등록금 인상은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과 실질적 지원 확대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인상안은 대학본부와 학생위원의 만장일치로 확정됐다. 지난 1월 5일 열린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제1차 회의에서 대학본부는 등록금 인상률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본부 측은 2027년 국가장학금 II 유형 폐지와 등록금 동결로 누적된 재정 부담을 근거로, 학부 등록금 인상률을 상한선인 3.19%로 제안했다. 이후 학생위원 측은 “2026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 요구 설문조사”로 학생 의견을 수렴해 요구안을 마련했다. 1월 23일 열린 제2차 등심위 회의에서 학부 등록금 인상률은 법정 상한 대비 0.24%p 낮은 2.95%로 최종 결정됐다. 정운지(문문 4)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다수가 등록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후 대학본부에 동결을 요청했으나,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인상 재원, 교육환경 개선에 투입 예정
교육 인프라 개선은 학생들의 학습 여건과 캠퍼스 생활 편의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버실 운영 확대 ▲Wi-Fi 인프라 개선

▲실습실 소프트웨어 환경 개선 ▲학생 복지 공간 개선 ▲우촌학사 환경 개선 ▲교육 시설 보수 및 안전 공사 등이 포함된다. 셔틀버스 운영 확대는 2026학년도 1학기부터 기존 2대에서 1대를 증차해 총 3대로 운영된다. Wi-Fi 인프라 개선을 위해 여름방학 중으로 노후화된 시설은 전면 교체되며, ‘Adobe 라이선스’도 확대 설치된다. 학생회실을 공유·소통·휴식 기능을 강화한 공간으로 재구성해 학생 복지 공간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우촌학사는 여름방학 중 내부 시설 공사를 진행하며, 창의관 냉난방기 교체 등 교육시설 보수 및 안전 공사도 병행된다.

등록금 인상에 따른 학생 부담 완화를 위해 장학금도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국가장학금 II 유형 전면 폐지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김 처장은 “장학금 유형, 선발 기준, 지급 시기 등 세부 운영 방안은 학생 의견을 반영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생지원비 확대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도 이뤄진다. 신입생 대상 주요 행사의 구성을 강화하고 진로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 및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2026학년도 상반기 오리엔테이션과 새내기 세로배움터 등을 확대해 신입생의 진로 설계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진로 프로그램 강화는 단과대학과 학생 주요 행사 지원을 통해 진행된다. 단과대학별 현직자 특강과 전공 맞춤형 진로 세미나를 확대 운영하고, 대동제 등 주요 행사와 연계한 진로 관련 부스를 운영해 학생 참여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등록금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 이외에도 본교는 ‘AI 기반 교육혁신’과 ‘교육장학금 개편’을 기획 중이다. AI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재정 투자로는 ‘AI e-class 구축’과 ‘생성형 AI 기반 학습 플랫폼 구축’ 등이 이뤄진다. 하반기 중 지원 되는 e-class는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인공지능 자동 자막, 번역 기능이 추가된다. 또한 생성형 AI 학습 플랫폼을 구축해 학습 과정 전반에서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 처장은 “교육 환경 개선과 학습지원 강화를 통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등록금 인상 후 남은 과제는?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본교 등록금 확대에 따라 실효성을 느낄 수 있는 지원이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디자인대학과 IT공과대학의 경우, 타 단과대학에 비해 등록금이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질과 시설·복지 측면에서 체감되는 낮다는 지적이다. 이는 타운홀미팅, 에브리타임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김도원(예선2) 학생은 “패션 마케팅 트랙은 실기·실습 과정이 없음에도 디자인대학 소속이라는 이유로 타 단과대학보다 더 많은 등록금을 지불하고 있다”며 “별다른 혜택이나 차별화된 지원을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은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대학본부는 학생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등록금을 책정했다고 전했다. 김 처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된 등록금 인상 소식

장은 “등록금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논의를 거치며 대학의 재정 현실과 학생 부담금 간의 균형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연이어 책정된 등록금 인상에 불만을 제기했다. 정부가 법정 상한선을 두고 있는 내국인 학생 등록금과 달리,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에는 별도의 인상 제한이 없다. 본교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은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 각각 5%, 2025학년도 7%, 이번 2.95% 인상까지 더해 총 19.95%가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김일환(국제학생입학지원센터) 센터장은 “유학생의 맞춤형 지원을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방식의 중 하나”라고 답했다.

지속되는 등록금 인상에도 별다른 지원이나 안내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모마찌(예선 2) 학생은 “등록금 인상은 계속됐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안내나 지원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학교가 해외 대학과 연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한국인 학생에게만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등 참여에 제한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학본부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김 센터장은 “장학제도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혜윤 기자 purple.pea06@gmail.com

학업장려금 지급 과정 혼선 발생, 본부 “적법한 절차 거쳐 지급”

대학본부의 국가장학금 II 유형 학업장려금(이하 학업장려금)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했다. 일부 학생들의 학업장려금 산정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달랐으며, 이에 관한 사전 안내가 부족했다. 대학본부는 본래 12월 초 교부 예정이던 학업장려금을 학생들의 생활 지원을 위해 교내장학금으로 선지급했다. 이후 인준된 예산으로 교내장학금을 지출 대체 처리했으나 지급 방식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대학본부는 향후 안내 방식과 절차를 보완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학업장려금은 국가장학금 II 유형에 속해 생활비 보조 성격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에서 2025학년도 2학기에만 한시적으로 지원했다. 장학재단이 대학에 예산을 배정하면 대학이 학생들에게 분배하는 구조다. 해당 장학금은 대학이 자체 선발 기준과 지급 방식을 마련해 집행된다. 본교에서는 교육부·장학재단의 지침과 자체지급기준에 따라 국가장학금 I 유형 수혜자 중 소득 구간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5구간 사이에 해당하는 학생을 수혜 대상으로 선정했다. 김희성(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학업장려금은 대학

연계지원형이기에 장학금의 선발 기준과 방식은 대학에게 자율로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본교 학업장려금은 선지급 됐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상처리 됐다. 대학본부는 예산 교부 이전 학기 초에 교내장학금으로 우선 지급한 후 12월 초 장학재단으로부터 예산이 교부되자 회계상 재원 대체 처리를 진행했다. 그러나 장학 시스템상 장학금별 지급방식을 구분해 등록하는 것이 제한되어 재원 변경된 장학금과 실지급액이 합산된 금액으로 표시됐다. 이 경우 교내장학금 기지급 또는 지급예정내역이 있는 학생은 교내장학금과 학업장려금이 합산된 금액이 반영돼 실지급 금액과 상이하게 보이게 된다. 이후 학생들에게는 ‘교내장학금에 대해 학업장려금으로 지출대체 처리했다’는 내용의 안내 문자가 발송됐다. 조종집(학생복지팀) 팀장은 “학기 초 학생들의 학업과 생활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해당 과정에서 수혜 학생들에게 지급된 학업장려금이 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중정시)에 기재된 금액과 불일치하자 학생들은 의문을 제기했다. 국가

장학금의 경우 소득 분위 등 기준에 따른 최대 수령 가능 금액을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확인할 수 있지만, 실지급액은 안내된 금액을 밑돌았다. 장학금 지급 내역이 기재되는 중정시에도 동일한 금액이 적혀있어 혼란이 더해졌다. 의명을 요청한 학업장려금 수혜자 A학생은 “장학재단 시스템과 중정시에 동일한 금액이 기재되어 해당 금액이 그대로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본래 산정된 금액은 200만 원 가량이었지만 최종적으로 받은 돈은 약 90만 원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학본부 측은 이번 학업장려금 지출 대체 처리는 자체지급기준과 교육부·장학재단과 사전합의를 거쳐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본래 12월 초 교부 예정이던 학업장려금을 학생들의 학업과 생활에 영향까지 않도록 교육부·장학재단과 사전 협의를 거쳐 교내장학금으로 선지급했고, 이후 인준된 예산으로 이를 보전했다는 입장이다. 조 팀장은 “장학재단 시스템에 입력된 장학금은 지급 시점에 차이가 있었을 뿐 이상 없이 모두 지급됐다”며 “지급예정인 교내장학금은 각 장학금별 지급일정에 따라 학생 본인 계좌로 순차 지

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학생들은 이번 학업장려금 지출 대체 처리 과정에서 사전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혼란이 가중됐다는 입장이다. 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중정시에는 동일한 산정 금액이 기재되어 있어, 학생들은 해당 금액이 그대로 지급될 것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이후 지출 대체 처리 안내가 이뤄지면서 실수령액은 달라졌다. A학생은 “사전에 지출대체 방식이나 실제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은 적이 없었다”며 “사후통보만 있었던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대학본부는 이번 학업장려금 지급 과정에서 예산 집행 시점상 사전 안내가 이뤄지기 어려웠으며 안내 방식 및 절차에 대해 검토 후 보완 과정을 거쳐겠다고 밝혔다. 학업장려금의 경우 실제 예산 교부가 12월 초에 이뤄지므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사전에 공지할 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조 팀장은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급 방식 및 처리 절차를 사전에 명확히 안내해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김혜윤 기자 purple.pea06@gmail.com

바로 잡 습 니 다

12월 8일(월) 발행된 617호 2면(블렌디드 러닝 개편된다)의 기사 중 1문단 “온라인 수업 2시간과 대면 수업 1시간이 혼합된 형태는 폐지되고, 온라인 비중은 30~50%로 조정된다. 대학본부는 학습 효과와 만족도 제고를 위한 조치라며 대면 수업 확대 논의를 위한 학생 의견 수렴도 병행할 계획이다.”를 “온라인 수업 2시간+대면 수업 1시간 형태는 폐지된다. 대학본부는 학습 효과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학생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로 수정합니다.
같은 기사 3문단의 “대학본부는 블렌디드 러닝 수업 비율을 기존 약 75% 이상에서 30~50%로 조정된다.”를 “온라인 수업 2시간+대면 수업 1시간 형태는 폐지된다.”로 수정합니다. 또한 “대면 수업 확대 논의를 위한 학생의 견 수렴도 병행할 계획이다.”를 “학습 효과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학생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로 수정합니다.
동기사의 “대면 수업 확대”는 모두 “블렌디드 수업 개선”으로 수정합니다.
향후 더욱 정확하게 보도하는 한성대신문으로 거듭나겠습니다.

AI 기반 교육체계 개편된다

본교의 'AI 융합교육 확산을 위한 학사 구조 개편 및 대학혁신'이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개편은 AI 시대에 맞춘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이번 교육 체계 개편으로 ▲AI융합대학 신설 ▲첨단 학습 환경 조성 ▲융합형 실전 교육 ▲AI 리터러시·AI 윤리의식 함양 ▲미래선도 연구 ▲교수 AI교육역량 지원 ▲데이터기반 행정 ▲직원 역량 강화 ▲AI 융합교육을 위한 재정 지원 ▲대학혁신의 주제 등이 이뤄진다. 김은주 기획조정처장은 "이번 개편을 계기로 대학에 전락 분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먼저 새로운 단과대학인 'AI융합대학'이 신설된다. AI융합대학은 창의융합대학의 융합 교육 체계에 AI 관련 교육을 접목시켜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크게 'AI학부'와 'AI융합산업학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창의융합대학에 속한 일부 학과가 학부 산하로 이관된다. AI학부에는 AI응용학과와 융합보안학과가 포함되며, AI융합산업학부에는 'AI기계로봇공학'이 신설될 계획이다. '미래모빌리티학과'와 '문학문화콘텐츠학과'도 이전될 방침이다. AI융합대학은 올해 하반기에 모집을 시작해 2027학년도부터 운영된다.

재학생을 대상으로 본교 AI 관련 시스템 전반적으로 고도화하는 AI 역량 강화 체계도 구축될 방침이다. 2026학년도부터 e-class에 AI를 연계한 학습 분석과 피드백 기능을 탑재한 'AI-LMS' 기능이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또한 'ChatGPT', 'Gemini', 'Claude' 등 멀티 LLM 기반 생성형 AI 플랫폼을 구축해 본교 전 구성원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장학금 제도 또한 개편해 일부 학생에게는 생성형 AI 구독료와 어도비 툴 등 편집 도구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 처장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운영 성과를 반영해 AI 관련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AI 역량 강화 체계에 발맞춰 학내 AI활용 윤리 가이드인 'HSU AI 활용 윤리 지침'을 활용해 윤리 교육도 진행한다"라고 말했다.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AI 실전 교육 확대도 주요 추진 과제다. 2~4학년을 대상으로는 'AI-PBL', 'AI 캡스톤디자인', 'AI 서비스러닝' 등 AI와 타 전공을 연계하는 AX 융합 교과목을 단과대학별로 운영한다. 또한 3, 4학년을 대상으로 'AI 융합 Micro Degree'와 'AI+X 연계전공'을 도입한다. 조무현(학사운영팀) 팀원은 "1학년은 AI 기

초, 2~3학년은 AI 활용 창의적 문제해결, 3~4학년은 AI 융합 및 산학연계로 구성된 단계별 교육 체계에 따라 AI 기초 교양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모든 전공·트랙에 AI 활용 교과목을 최소 1과목 이상 개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AI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AI 리터러시 교육 강화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3월부터 109개의 AI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고, 456개 강좌에서 AI 활용 교육을 단계적으로 신설한다. 조문석 교육혁신처장은 "오는 2학기에는 'AI와 윤리'를 일반선택 교과목으로 도입하며 시범 운영 후 개선을 거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I 관련 교수진의 역할과 지원 체계도 정비된다. AI 기반 교육과 연구에 참여를 희망하는 교수를 '겸무 교원'으로 임명할 계획이다. 겸무 교원은 기존 전공을 유지하면서도 AI융합대학 교육·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 산업체와 연구 기관 전문가를 겸무 교원으로 초빙해 실전형 AI 융합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세부적인 운영 방식과 지원 체계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행정 분야에서의 AI 기반 자동화 행정 시스템 도입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문서 초안 생성, 민원 응대 등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도입해 학생들이 보다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김 처장은 "교직원들의 단순 처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기획과 학생 지원 등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철저히 적용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AI 활용 교육도 병행될 예정이다. 실제 행정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하고 데이터 분석 도구 활용이나 업무 자동화 설계 등의 과정을 포함해 교육 체계를 정비하는 방식이다. 김 처장은 "교직원이 AI를 도구로 활용해 행정 효율성과 조직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AI 융합 교육을 위한 재정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2026학년도부터 AI 융합 교육 및 연구 특성화를 위해 총 10억 원의 재원이 편성됐으며,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교육 및 연구에 전반적으로 지원된다. 김 처장은 "AI교육 전환을 선도하는 대학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대학생활의 밑그림을 그린다



▲상상관에서 진행된 'H메이저 노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신입생

'2026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HANSUNG START-UP DAY(이하 오티)'가 지난 9·10·13일에 교내 전역에서 실시됐다. 이번 오티는 신입생의 전공 이해를 높이고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오티에는 9일에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과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디자인대학, 10일에 IT공과대학과 창의융합대학, 미래플러스대학의 수시 신입생이 참가했다. 13일은 정식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13시에 시작한 오티는 ▲등록 ▲H메이저 노트 프로그램 ▲캠퍼스 투어 ▲트랙탐방 프로그램 ▲대학생활 안내 순으로 실시됐다. H메이저 노트 프로그램은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예비대학'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전공탐색 노트, 자율전공설계지원 안내 등을 통해 전공과 관련한 선배의 조언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캠퍼스 투어에서는 선배의 안내에

따라 ▲상상관 ▲상상파크 ▲학술정보관 등을 돌아다니며 장소에 대한 소개가 이뤄졌다. 트랙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낙산관 체육관에 마련된 49개의 부스에서 각 트랙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낙산관 대강당에서 학사일정과 트랙제도 안내, 학내 프로그램 소개 등의 대학생활 안내가 진행됐다.

오티에 참가한 학생에게는 비교과 포인트 20pt와 본교 기념품 및 안내 책자 등으로 구성된 신입생 웰컴키트가 제공됐다. 임현주(IT 1) 학생은 "트랙제와 장학금 등 신입생이 궁금해 할 정보를 체계적으로 안내받았다"며 "오티를 통해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유연서(인문 1) 학생은 "오티를 통해 앞으로 함께 할 신입생 학우를 만나고 친분을 쌓는 기회를 얻어 뜻깊었다"고 전했다.

김산 기자 kimsan060421@naver.com

AI 대전환, 한성대의 교육·연구·행정 혁신을 여러본과 함께 완성하겠습니다

2026년 3월, AI-X 융합교육, 사립을 위한 혁신 재구조화 'AI 융합대학' 신설, AI 융합교육 연구 특성화를 위한 재정 10억 원 증액, 교육·연구 지원 확대 및 교수 역량 강화

본교는 AI 시대에 맞춘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이번 교육 체계 개편으로 ▲AI융합대학 신설 ▲첨단 학습 환경 조성 ▲융합형 실전 교육 ▲AI 리터러시·AI 윤리의식 함양 ▲미래선도 연구 ▲교수 AI교육역량 지원 ▲데이터기반 행정 ▲직원 역량 강화 ▲AI 융합교육을 위한 재정 지원 ▲대학혁신의 주제 등이 이뤄진다. 김은주 기획조정처장은 "이번 개편을 계기로 대학에 전락 분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먼저 새로운 단과대학인 'AI융합대학'이 신설된다. AI융합대학은 창의융합대학의 융합 교육 체계에 AI 관련 교육을 접목시켜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크게 'AI학부'와 'AI융합산업학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창의융합대학에 속한 일부 학과가 학부 산하로 이관된다. AI학부에는 AI응용학과와 융합보안학과가 포함되며, AI융합산업학부에는 'AI기계로봇공학'이 신설될 계획이다. '미래모빌리티학과'와 '문학문화콘텐츠학과'도 이전될 방침이다. AI융합대학은 올해 하반기에 모집을 시작해 2027학년도부터 운영된다.

재학생을 대상으로 본교 AI 관련 시스템 전반적으로 고도화하는 AI 역량 강화 체계도 구축될 방침이다. 2026학년도부터 e-class에 AI를 연계한 학습 분석과 피드백 기능을 탑재한 'AI-LMS' 기능이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또한 'ChatGPT', 'Gemini', 'Claude' 등 멀티 LLM 기반 생성형 AI 플랫폼을 구축해 본교 전 구성원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장학금 제도 또한 개편해 일부 학생에게는 생성형 AI 구독료와 어도비 툴 등 편집 도구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 처장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운영 성과를 반영해 AI 관련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AI 역량 강화 체계에 발맞춰 학내 AI활용 윤리 가이드인 'HSU AI 활용 윤리 지침'을 활용해 윤리 교육도 진행한다"라고 말했다.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AI 실전 교육 확대도 주요 추진 과제다. 2~4학년을 대상으로는 'AI-PBL', 'AI 캡스톤디자인', 'AI 서비스러닝' 등 AI와 타 전공을 연계하는 AX 융합 교과목을 단과대학별로 운영한다. 또한 3, 4학년을 대상으로 'AI 융합 Micro Degree'와 'AI+X 연계전공'을 도입한다. 조무현(학사운영팀) 팀원은 "1학년은 AI 기

초, 2~3학년은 AI 활용 창의적 문제해결, 3~4학년은 AI 융합 및 산학연계로 구성된 단계별 교육 체계에 따라 AI 기초 교양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모든 전공·트랙에 AI 활용 교과목을 최소 1과목 이상 개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AI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AI 리터러시 교육 강화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3월부터 109개의 AI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고, 456개 강좌에서 AI 활용 교육을 단계적으로 신설한다. 조문석 교육혁신처장은 "오는 2학기에는 'AI와 윤리'를 일반선택 교과목으로 도입하며 시범 운영 후 개선을 거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I 관련 교수진의 역할과 지원 체계도 정비된다. AI 기반 교육과 연구에 참여를 희망하는 교수를 '겸무 교원'으로 임명할 계획이다. 겸무 교원은 기존 전공을 유지하면서도 AI융합대학 교육·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 산업체와 연구 기관 전문가를 겸무 교원으로 초빙해 실전형 AI 융합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세부적인 운영 방식과 지원 체계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행정 분야에서의 AI 기반 자동화 행정 시스템 도입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문서 초안 생성, 민원 응대 등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도입해 학생들이 보다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김 처장은 "교직원들의 단순 처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기획과 학생 지원 등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철저히 적용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AI 활용 교육도 병행될 예정이다. 실제 행정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하고 데이터 분석 도구 활용이나 업무 자동화 설계 등의 과정을 포함해 교육 체계를 정비하는 방식이다. 김 처장은 "교직원이 AI를 도구로 활용해 행정 효율성과 조직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AI 융합 교육을 위한 재정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2026학년도부터 AI 융합 교육 및 연구 특성화를 위해 총 10억 원의 재원이 편성됐으며,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교육 및 연구에 전반적으로 지원된다. 김 처장은 "AI교육 전환을 선도하는 대학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12월 5일 본교 재학생에게 발송된 총장 서신

임지민 기자 seeshuron@naver.com

설렘으로 들쭉인 새내기 새로배움터

'2026 새내기 새로배움터 Career Design Camp(이하 새터)'가 지난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2박 3일간 진행됐다. 새터에는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디자인대학 ▲IT공과대학 ▲창

의융합대학 등이 참여했다. 첫날은 ▲입소식 및 오리엔테이션 ▲학생자치기구 소개 ▲학군단 및 홍보대사 등 안내 ▲동아리 공연 등이 진행됐다. 동아리 공연에는 ▲왕산악 ▲돌볼 ▲탈패 ▲낙산극회 ▲TRIAx ▲NOD ▲4호선마이크

등의 공연예술분과 정동아리가 무대에 올라 분위기를 달궜다. 동아리 공연에 참석한 윤교은(사회과학 4) 학생은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친구들을 응원하고 호응도 열심히 했다"며 "이번이 4번째로 방문하는 새터인데 가장 재밌게 즐겼을 만큼 신나는 공연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둘째 날에는 ▲미래설계 캠프 프로그램 ▲단과대학별 레크레이션·학장님 인사말 ▲총장님·교학부총장님 인사말 ▲총학생회 행사·장기자랑 및 응원전 ▲초청공연 등을 통해 신입생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초청공연은 가수 '자이언티'와 '브브걸'이 무대에 올랐다.

새터에 참여한 이연주(인문 1) 학생은 "선배들의 공연도 보고 다양한 단체를 알게 됐다"며 "대학생활이 떨리지만 어렵지 않게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도연(ICT 1) 학생은 "수준 높은 공연을 볼 수 있어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며 "이후 학교 생활에서도 정춘을 즐기고 싶다"고 밝혔다.

김해윤 기자 purple.pea06@gmail.com



▲2일차 저녁, 학생들이 무대를 보며 열광한다.



사진 제공 : 종로구청

창신역 인근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예정 본교 인근 창신역 일대에 경사형 엘리베이터(이하 엘리베이터)가 오는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엘리베이터는 서울특별시 주관 '이동약자 편의시설 대상지 시민 공모'를 통해 설치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승인동 고지대 이동 편의 개선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이 목적이다. 엘리베이터는 창신역 2번 출구부터 시작해 승인교회 일대까지 전체 길이 115m 규모로 조성된다. 오는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친 뒤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공사 기간에는 종로구청에서 규정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공사 구간 내 계단을 통제하거나 임시 보행 동선이 마련될 예정이다. 우경준(종로구청 도로과) 주무관은 "공사 구간 인근을 경유하는 종로03번 버스는 경로는 공사 대상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 운행할 계획"이라며 "학생과 주민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오갈 수 있는 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통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신경쓰겠다"고 전했다.

임지민 기자 seeshuron@naver.com

균형 잃은 일과 학업

정부는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와 조기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학습 병행제'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청년이 대학 등의 기관에서 산업 관련 이론 교육을 수강하고, 산업체에 취업해 실무를 수행하는 '도제식' 교육 시스템이다. 제조업 분야부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까지 폭넓은 산업 분야에서 주목 받아 왔다. 그러나 실무와 동떨어진 부실한 훈련 과정 등의 문제가 나타나며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일학습병행제에서 기업은 청년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해 교육을 제공하고, 대학이 해당 과정을 자격 또는 학력으로 인정한다. 정부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일학습병행법) 등을 통해 청년의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다. 전성준(한국직업능력연구원 동향·데이터분석센터) 연구원은 "직무 역량을 쌓음과 동시에 학점 인정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학습근로자는 근무 외에도 실무 훈련인 '도제식 현장교육훈련(JIT)'과 이론 교육인 '사업장 외 교육훈련(Off-JT)'을 받는다. 최소 6개월 이상 훈련 과정을 거친 후 외부평가에 합격할 경우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해당 학습근로자는 반드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다. 전 연구원은 "일반적인 취업 준비 기간보다 이른 시점에 산업현장에 진입할 수 있으며, 재학 중 직무 경험과 경력을 축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조기 취업과 실무 경험이라는 명확한 이점이 부각되면서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연도별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및 학습근로자 참여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약 9만 명이었던 학습근로자가 2024년 약 15만 명으로 50% 이상 증가했다.

학습근로자는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장에서는 틀에 갇힌 이론 교육으로 실무 역량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론 교육 과정은 『일학습병행 운영규정』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

준(이하 NCS)에 기반해 설계되어 있다. NCS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국가가 표준화한 체계다. 특정 산업 분야에서 수행하는 직무를 세부 능력단위*로 쪼개어 이론화한 '교본'과 같다. 그러나 NCS에는 방대한 직종별 지식이 모두 담겨 있어 현장에서 적용되는 실무 역량과는 거리가 멀다는 견해다. 전 연구원은 "일부 기업에서 최신 스마트 공장 설비를 도입했음에도 이론 교육과정에서는 여전히 표준 공정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론 교육과정이 부실한 상황에서 일과 학습을 병행하며 학습근로자가 강도 높은 일정에 시달리기도 한다. 실무 훈련을 포함해 근무 시간은 일학습병행법에 따라 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론 교육 시간은 별도의 보장 사항이 없어 휴무일이나 주말에 공동훈련센터에서 이론 교육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4년간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한상민(28) 씨는 "실무 훈련 후 이론 교육까지 이수해야 하는 과도한 일정에 부담을 느낀 경험이 있다"고 토로했다. 김대영(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원은 "낮에 일하고 주말이나 야간에 학교를 가야 하는 일정 탓에 중도 탈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내·외부평가 기준 간 차이로 많은 학습근로자가 외부평가에서 탈락하는 문제도 있다. 학습근로자는 훈련 중 실무 훈련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내부평가를 거친 후 이론 중심의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내부평가 합격률에 비해 외부평가 합격률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한국직업자격학회의 「일학습병행제도 성과에 대한 전문가 인식 변화 및 정책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내부평가 합격률은 95~99%에 달하는 반면 외부평가 합격률은 약 48%에 불과했다.

기업 측이 훈련 과정 내 NCS 반영 비율을 과도하게 설정한 것이 실무와 교육 내용 간 괴리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학습 기업 대부분이 50%에서 최대 100%의 NCS 반영 비율을 채택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기업 현장의 실제 직무 내용과 훈련 과정 간의 불일치를 심화시켰다는 분석이다. 박용호(인천대학교 창의인재개발학과) 교수는 "실제 현장에서 이뤄지는 일학습병행제 실습 훈련 내용과 NCS에 규정된 내용이 온전히 연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학습근로자의 강도 높은 실무와 이론 학습의 원인으로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최소 훈련 시간이 꼽힌다. 일학습병행제는 대개 NCS에 기반한 교육훈련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직무 능력 체득 정도에 따라 L1에서 시작해 L8까지의 능력 단위로 나뉘는데, 이에 따라 최소 300시간의 훈련 시간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능력 단위에 따른 훈련 시간 규정이 학습근로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다. 전 연구원은 "특정 직무에 대해 NCS에서 제시한 능력 단위와 권장 훈련 시간이 존재한다"며 "이를 일학습병행 훈련 과정에 상당 부분 반영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전했다.

내·외부 평가의 괴리는 주관 부처 분산이 원인이다. 내부평가는 학습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하고 훈련받은 기업 내에서 출제되므로 현장성을 반영한다. 반면 정부가 주관하는 외부평가는 NCS에 이론 위주로 출제된다. 이로 인해 학습근로자의 현장 경험과 외부 평가 내용의 간극이 발생하며 이는 낮은 합격률로 이어지고 있다. 손규태(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외부평가 내용이 현장 실무와 달라 합격률이 낮다는 지적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교육 과정 승인 시 해당 기업의 업무 특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국가 단위의 범용적인 표준만으로는 개별 기업의 특수한 직무 환경을 완벽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에서다. 박 교수는 "실제 업무와 NCS 내용이 연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이라며 "NCS 반영 비율 등 훈련 과정 설계 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학습근로자의 과도한 훈련 시간을 해결하기 위해 '선행학습 경험 인정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해당 제도는 일학습병행제 참여 이전의 직무 경험이나 교육 훈련을 받은 이력 등을 학습 시간으로 추후 인정해 주는 제도다. 일학습병행에 일부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확대할 경우 유동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견해다. 김 연구원은 "해당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은 기업도 존재해 제도를 확대 및 규범화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실무 중심의 평가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실제로 일학습병행제의 모태가 된 독일의 도제식 훈련 제도가 발달한 기관은 필기시험보다 작업 태도, 실무 성적 등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 전 연구원은 "직무 특수성이 강한 분야의 경우 실습·작업형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훈련과 평가의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참여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훈련 역량이 부족한 기업의 진입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선정 기준을 정교화하고, 규정 위반 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안세화(한국기술교육대학교 강소기업경영학과) 교수는 "참여 기업 선정 과정부터 교육 역량 등을 철저히 검증해 훈련 목적에 맞지 않는 기업은 일차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제식 : 장인이 제자에게 현장에서 직접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교육 방식

**능력 단위 :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체계의 하위단위에 해당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기본 구성요소

김산 기자 kimsan060421@naver.com

임기자의 외교 노트

미국의 대쿠바 제재, 에너지로 숨통을 조이다

미국이 쿠바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미국은 쿠바 정책이 미국 안보에 비상한 위협이 된다는 점을 이유로 대쿠바 에너지 제재를 강행했다. 그러자 쿠바는 '국가 비상 조치'를 발령했다. 미국이 중국·러시아 등 제3국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하면서 갈등이 국제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쿠바가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경제 협력을 확대하자 미국은 대쿠바 제재라는 고삐를 죄고 나섰다. 지난해 12월부터 미국이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실은 유조선의 이동을 봉쇄하며 쿠바의 원유 수급 경로를 차단하기 시작했다. 이어 지난 1월에는 행정명령을 통해 다른 국가의 석유 판매와 공급까지 제한하는 조치를 내리며 제재 범위를 확대했다. 임수진(대구가톨릭대학교 스페인중남미학과) 교수는 "미국의 조치는 경제 압박을 넘어 쿠바의 에너지 공급망 전체를 통제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석유 수입이 끊긴 후 쿠바 사회는 마비 상태에 놓여있다. 현재 쿠바는 연료 부족으로 수도·전력 등 공공 서비스 공급을 전반적으로 축소된 상태다. 미국은 쿠바의 핵심 원유 공급국인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 산업 및 관련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쿠바와 석유를 운송·거래하는 선박·금융기관·중개 기업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달리 결제망 접근을 차단해 국제 거래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조치도 병행되고 있다. 하상삼(국립외교원 전략지역연구부) 교수는 "에너지 부족은 국가 행정과 공공 서비스 운영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크다"며 "항공 운항과 물류 이동에 차질이 발생해 생활품 공급도 제한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경제를 명분으로 한 정치적인 압박 전략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1960년대 초반부터 쿠바가 반미 성향 국가와 밀접한 협력 관계를 형성하자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경제 제재에 착수했다. 이후 양국 관계는 대립 구도로 고착화했고 이번 대쿠바 제재 역시 정책 변화를 유도하려는 전략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임 교수는 "양국의 갈등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오랜 대립의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에는 에너지 주도권 확보를 둘러싼 역대 경쟁 구도도 자리한다. 미국은 중남미 지역에서 에너지 영향력을 확대하며 공급망 우위를 선점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세계 1위 수준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베네수엘라가 주요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장기간 반미 노선을 유지해 온 쿠바와의 갈등 역시 이러한 에너지 경쟁 구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하 교수는 "에너지 공급망 통제가 정치·경제 질서를 좌우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중남미 지역에서 쿠바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고 자국 중심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전략도 반영돼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직접적인 군사 개입 없이도 에너지 제재를 통해 역대 국가들의 정책 방향과 대외 협력 구도를 조정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미국이 설정한 지역 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읽힌다. 송성대신 금융망과 에너지 공급망을 지렛대로 삼아 권력 구도를 관리하려는 외교 전략이 전면화되고 있는 것이다. 임 교수는 "현재 제재는 군사력 없이 국가 기능을 제한하는 압박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제재가 제3국으로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쿠바는 미국의 제재를 '경제 전쟁'으로 규정하며 유엔 등에 제재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국제사회에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미국은 쿠바에 석유를 공급하거나 경제 협력을 지속하는 제3국에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압박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하 교수는 "제재 범위가 제3국까지 확장되면서 사실상 2차 제재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사회는 이번 조치 이후 제재를 통해 국가 기능 전반을 압박할 수 있다는 선례가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쿠바 제재와 같이 에너지 접근을 차단할 경우 단기간 내 사회·경제 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는 이유에서다. 임 교수는 "현재 미국이 추가로 쿠바를 얼마나 압박할지는 불명확하지만 이번 제재를 통해 에너지 접근 차단이 국가 운영 전반에 주는 영향력을 확인한 것은 분명하다"며 "에너지 접근 차단이 국가 기능 전반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축적되면 향후 국가 제재 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임지민 기자 seeshuron@naver.com



모여라 청년! 작전명 '단발성 모임'



문화는 내가 제일 잘 알지

“요즘 애들은 왜 그래?” 어느 세대나 그랬듯, 현 젊은 층도 자주 듣는 물음이다. 진짜 요즘 애들은 왜 그럴까? 그래서 알아봤다.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만 보면 사족을 못 쓰고 달려드는 기자가 그 속으로 뛰어 들었다. MZ세대의 대표주자인 기자를 따라 청년이 열광하는 것을 파헤쳐보자.

여기여기 모여라!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단발성 모임'이 청년층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어린 시절 놀이터에서 뛰어놀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경찰과 도둑' 모임부터 처음 보는 이들과 감자튀김을 나눠 먹는 '감튀 모임', 짧은 대화를 통해 상대를 알아가는 '로테이션 소개팅'까지. 모였다가 헤어지는 순간 자체를 즐기는 현상이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바로 지금 그 모임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자.

임지민 기자 seeshuron@naver.com



▲경찰과 도둑 참가자들이 게임 시작을 앞두고 등에 이름표를 부착한 채 집결했다.

만남은 짧게, 연결은 느슨하게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가볍게 모였다가 헤어지는 단발성 모임이 새로운 관계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청년들은 명확한 목적이나 장기적인 계획 없이 특정 활동이나 취향을 매개로 모여 짧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빠르게 해산한다. 서울구(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청년층 사이에서는 단발성 모임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관계 형성 방식의 변화와 맞물린 새로운 사회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단발성 모임은 소속감을 확보하되 ‘느슨한 연대’가 반영된 결과다. 오늘의 청년들은 다양한 사람과 부담 없이 교류하며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한다. 짧은 만남만으로도 유대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임은 관계의 지속 여부와 상관없이 의미 있는 사회적 경험을 제공한다. 윤인진(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청년층은 관계에서 오는 심리·시간적 부담을 줄이면서 사회 연결감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교수는 “청년은 만남 자체에서 얻는 경험을 중요시하며 관계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과 디지털 플랫폼에 익숙한 청년 세대의 특성 역시 단발성 모임이 확산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SNS, 메신저 등을 통해 빠르게 모임 정보를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다. 과거보다 관심사와 취향이 비슷한 이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 덕분에 단발성 모임이 물리적·시간적 제약 없이 이뤄진다. 새로운 사람과의 교류를 시도하는 문턱이 낮아진 셈이다. 윤 교수는 “디지털에 친화적인 청년 세대의 특성이 단발성 모임을 활발하게 하고 빠르게 확산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분석했다.

오늘 경도할 사람

단발성 모임의 대표 주자는 경찰과 도둑 모임이다. 이른바 '경도'라고 불리는 이 단발성 모임은 제한 시간 동안 도둑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감옥에 갇힌 도둑은 동료 도둑의 도움으로 탈출하는 방식이다.

참가자 모집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뤄지며, 모임은 동네 공원이나 운동장 등에서 진행된다. 실제로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에서의 경도 관련 검색량은 지난해 12월 전월 대비 6만 7,044% 급증했다. 서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특성상 지역을 기반으로 친화적인

빈 감자튀김 ▶ 용기가 높게 쌓여있다.



▲기자와 참여자가 감자튀김을 먹으며 취향을 공유하고 있다.

분위기를 조성하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편하게 모임을 형성하고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도둑을 잡는다는 단순한 규칙 덕분에 처음 만난 이들도 쉽게 어울릴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경도 모임에서는 별도의 비용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누구나 공감 참여할 수 있다. 안양대학교 영미언어문화학과 3학년 재학 중인 이지현 학생은 “규칙이 단순해서 처음 만난 사람들과도 금방 어울릴 수 있었고, 별다른 준비 없이 바로 참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갑작스레 모여 뛰어다니는 청년들, 그 속내는 무엇일까. 경도 모임은 어린 시절 골목에서 뛰놀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향수가 되고, 실제로 몸을 움직이며 사람과 마주하는 경험이 해방감을 선사한다. 윤 교수는 “정해진 역할에 따라 마음껏 뛰어다니는 과정 자체가 일상에서 잠시 벗어난 느낌을 준다”며 “몸을 움직이며 타인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경험이 일종의 해방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자가 직접 참여해 보니 동네에 사는 또래 청년들을 만나 뛰고 웃으며 교류하는 재미가 쏠쏠했다. 시작 전에는 말을 아끼며 서있었지만, 역할이 나뉘고 출발 신호가 울리자 상황이 달라졌다. 참가자들은 ‘저쪽’이라 외치고 도망치며 처음 본 사람과 자연스럽게 같은 방향으로 뛰어 다녔다. 몇 분이 지나자 웃음이 터져나왔고 어색함도 빠르게 사라졌다. 경도 모임에 참여한 숭실대학교 컴퓨터학부 2학년 재학 중인 이연학 학생은 “처음 보는 또래 친구들과 편하게 교류할 수 있어 즐거웠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지역 커뮤니티가 소홀해진 시대인 만큼 일상 속에서 타인과 연결되고 싶다는 욕구가 놀이의 형태로 분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자튀김 위로 쌓인 이야기

경도에 이어 또 다른 형태의 단발성 모임이 등장했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 모여 감자튀김을 먹는 일명 감튀 모임이다. SNS와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감튀 모임 모집글이 잇따라 올라온다. 하나의 모임에 1,700명 가량의 사람들이 가입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롯데리아나 맥도날드와 같은 햄버거 프랜차이즈에서 관련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연학 학생은 “남녀노소 상관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감튀 모임의 핵심은 감자튀김 하나가 낯선 이들을 한자리에 모아 교류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참가자들은 감자튀김을 늘어놓고 고선 식감이나 소스 조합에 대해 이야기한



▲로테이션 소개팅에 참여한 기자가 참가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다.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공통분모가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끈다. 감자튀김은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음식이라는 점에서 대화를 여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서 교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접근성 낮은 소재는 자연스러운 대화와 공감 형성을 이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감자튀김을 매개로 취향을 공유하며 빠르게 친밀감을 쌓는다. 좋아하는 소스나 감자튀김의 식감에 공감하며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하나의 음식 취향만으로 연결되는 경험은 관계 형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윤 교수는 “음식이라는 공통 분모가 존재하면 청년들은 부담 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자가 참여한 감튀 모임에서도 대화는 자연스럽게 감자튀김에서 시작했다. 소스 궁합과 식감 차이에 대한 의견이 이어졌고 자연스럽게 일상 이야기로 주제가 확장됐다. 감자튀김에 관한 토론 외에도 다양한 이들과 고민을 나누거나 사소한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막막함이나 진로 고민 같은 현실적인 이야기도 오고갔다. ‘청년’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대화는 빠르게 깊어졌다. 이지현 학생은 “처음에는 단순히 감자튀김만 먹는 자리라 생각했지만, 음식을 계기로 일상부터 고민까지 공유하며 동네 사람들과 편하게 교류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러한 단발성 모임 흐름은 청년의 연애 시장에도 스며들고 있다. 바로 로테이션 소개팅이다. 기존의 소개팅이 사전에 정해진 짝과 비교적 긴 시간을 보내며 상대를 알아가는 방식이라면, 로테이션 소개팅은 한 공간에서 일정 시간마다 자리를 바꾸며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로테이션 소개팅을 운영하는 ‘러브매칭’의 양보현 대표

는 “개인의 감정 소모와 관계 단절 위험을 줄이면서도 의미 있는 인연을 찾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한 소개팅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로테이션 소개팅에서는 모두가 부담 없이 서로를 파악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간단한 자기소개 카드를 작성한 뒤 일정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고, 타이머가 울리면 자리를 옮긴다. 몇 분 동안 취향과 관심사를 나눈 뒤 다시 이동하면 또 새로운 상대와의 만남이 시작된다. 이같은 구조 덕분에 거절이나 실망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짧게 반복되는 만남으로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탐색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연학 학생은 “취향이나 관심사 등 다양한 소재로 짧은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곤 한다”고 말했다.

기자가 직접 참여했을 때 분위기는 예상보다 편했다. 10분 간의 짧은 대화로 상대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대화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기자 자신이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상황에서 어떤 주제의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인지 돌아보는 순간도 경험했다. 이지현 학생은 “짧은 시간 동안 서로를 알아가고 다양한 사람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다”며 “연인 관계에서 자신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알아가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청년에게 만남은 길이보다 순간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잠깐 모였다가 헤어지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서 서로의 취향과 생각을 나누고, 예상치 못한 대화를 통해 새로운 시선을 배우게 된다. 관계가 오래 이어지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얻는 깨달음과 교류의 즐거움이다. 단발성 모임은 청년이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는 관계의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윤 교수는 “청년의 단발성 모임은 시대 변화에 따른 자연스럽게 긍정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숫자를 통해 방향을 제시하다

누구나데이터 김자유

(편집자주)

우리 일상 속의 소비와 관심, 취미는 모두 기록되고 데이터로 남는다. 데이터는 이제 객관성과 효율을 상징하는 지표이지만, 이를 수집해 활용할 수 있는 이들은 많지 않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외치는 이가 있다. 바로 데이터 분석 솔루션 기업 '누구나데이터'의 김자유(32) 대표다. 그는 누구나데이터를 통해 데이터 분석, 웹사이트와 캠페인 페이지 제작, 데이터 활용 교육 등을 제공하며 데이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데이터가 일상이 된 시대, 그가 수많은 숫자 속에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숫자 너머의 가치를 읽어내고자 하는 김 대표의 데이터 활용 철학을 들어보고자 그를 만났다.

김혜윤 기자 purple.pea06@gmail.com

Q. 데이터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

김 대표 :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입시 경쟁과 과도한 선행학습 분위기 속에서 학업 스트레스를 크게 느꼈다. 교육 현실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영리 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입사했다.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에서 활동가로 일하며, 홍보를 담당했다. 홍보 담당자로서 카드뉴스를 만들고 캠페인을 기획하다 보니 지금 제작하는 홍보물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성과를 검증하고 효과를 높일 방법을 찾고 싶었다. 최신 마케팅 기법을 배우기 위해 관련 교육을 찾다니며 공부를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마케팅의 핵심이 결국 데이터 활용에 있음을 깨달았다. 감각이나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수치를 통해 성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을 개선하는 방식을 배웠다.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는 시대에 대다수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점이 인상적으로 다가왔다. 이후 여러 교육 과정을 거치며 데이터 분석 역량을 쌓았고, 데이터 컨설팅 전문 기업인 '데이터 리서치'에 입사하면서 데이터 분석가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게 됐다.

Q. '누구나데이터'를 설립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김 대표 : 누구나데이터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비영리 단체를 돕고 싶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데이터 활용 기반이 부족한 단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 솔루션을 제공한다.

데이터 리서치에서 일 할 당시 비영리 단체인 '굿네이버스'와 협업할 기회가 있었다. 당시 굿네이버스는 처음으로 데이터 분석 도구를 도입하는 단계였기에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적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였다. 굿네이버스의 홍보와 모금 활동을 데이터로 점검·개선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갔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을 조정하는 변화도 이뤄졌다.

이 경험을 통해 데이터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기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일반 기업은 이미 마케팅이나 데이터 전문가를 내부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비영리 단체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데이터를 어렵지 않게 해석해 실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누구나데이터를 설립했다.

Q. 누구나데이터가 추구하는 기업 운영 가치를 정한다면.

김 대표 : '모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확산'을 핵심 가치로 내세운다. 데이터

는 많은 사람이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치를 발휘한다. 흔히 최신 기술이 가장 우수하다고 여기지만, 실무 현장에서는 최첨단 기술보다 실제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 고도화된 기술을 사용 여부보다 데이터를 통해 어떤 변화를 이끌어냈는지 핵심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다.

Q. 상술한 가치를 바탕으로 현재 어떤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설명해 달라.

김 대표 : 누구나데이터는 '그린피스', '세이프 더 칠드런'과 같은 비영리 단체와 협업하고 있다. 이들 단체에 자체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제공해 기관 홈페이지와 연동하면 방문자 수나 유입 경로 같은 정보가 자동으로 수집되도록 지원한다. 모금 페이지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방문자 분석 기능을 함께 탑재해 모금 성과를 데이터로 점검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 또한 홍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직접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비영리 단체의 홍보 과정 전반을 데이터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비영리 단체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모인 조직이다. 다만 인력이나 예산의 한계로 데이터 활용까지 신경 쓰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했다.

Q. 비영리 단체에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가치관을 구체적으로 구현한 사례가 있나.

김 대표 : 웹 접근성을 보장해 누구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웹 접근성은 노인이나 어린이, 장애인처럼 화면을 보지 못하거나 웹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이들도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누구나데이터의 홈페이지 제작 도구인 '캠페이너스'로 모금 페이지를 만들면 별도의 추가 작업 없이도 웹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기획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에게 가지고 있는 스크린리더가 화면의 요소들을 상세히 읽을 수 있도록 코딩하기도 하고 마우스 사용이 어려운 이를 위해 키보드만으로도 홈페이지 조작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여러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현재 캠페이너스를 사용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접근성 개선될 예정이다.

Q. 누구나데이터를 운영과정에서 어려웠던 점과 이를 해결한 방법이 궁금하다.

김 대표 : 비영리 단체는 데이터가 생소하다 보니 도입과 적용이 뒤로 밀리고 홍보 활동 이후에도 성과를 수치로 점검하거나



사진 제공 : 김자유 대표

▲ 김 대표가 '누구나데이터의 빅퀘스천'에서 강연한다.

개선점을 찾는 과정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상황을 바꾸고 싶어 데이터가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직접 보여주는 데 집중했다. 캠페인이나 콘텐츠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조희수, 클리블터럼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미리 세팅했다. 실행 이후에는 데이터를 분석해 개선점을 도출했다. 이처럼 업무 흐름 안에 데이터를 적용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고 데이터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결과로 증명했다. 실제로 비영리단체들이 솔루션을 받은 이후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도 했다.

Q. 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해 추가적으로 노력한 바가 있는가.

김 대표 : 지난해에 데이터 활용 방안을 실무자들이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출판사를 설립했다. 현재까지 두 권을 출간했고, 앞으로도 관련 분야의 서적을 꾸준히 선보일 계획이다. 출간하는 책은 디지털 모금 전략과 데이터 기반 운영 사례 등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비영리 단체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 마케팅 전문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였다.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출판하는 책에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식과 사례를 담아내고자 했다.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Q. 앞으로 새롭게 도전해 보고 싶은 분야나 확장 계획이 있나.

김 대표 : 데이터 분석 솔루션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다. 그간 인공지능이 데이터 관련 업무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고민했다. 인공지능 활용이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 수 없었고 스스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방향성을 확립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현재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의 유용성이 많이 입증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공지능을 활용해 기존 인공지능을 단순히 차용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상황에 잘 맞는 독자적 활용 모델을 구축하는 방향성을 확립했다. 분야를 점차 확장하며 비영리 활동을 돕고자 한다.

Q.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청년 세대의 데이터 활용과 그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인공지능 기술이 확산되면서 데이터에 대한 관심도 역시 함께 높아지고 있다. 실제 기업들도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만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청년 세대에게 데이터 역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까운 능력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런 환경에 맞춰 인공지능을 활용해 개선점을 도출해 보는 경험을 해봤으면 한다. 단순히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 문제를 두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공지능도

서울시 사회적경제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
'카카오임팩트 펠로우' 11인에 선정
'비영리단체 디지털 전환 공로' 장관 표창
'올해의 펀드레이저 상' 수상
대한민국 체인지메이커상 수상



사진 제공 : 김자유 대표

▲ 김 대표가 데이터 전문가 하예성과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김자유 대표

▲ 누구나데이터 로고를 들고 있는 김 대표

구를 적용해 보면서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갖추고 문제 해결 과정을 미리 경험해 보는 건 앞으로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데이터는 복잡한 정보를 간결하게 정리하고 보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이지만, 데이터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이를 풀어내는 자세도 필요하다. 내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은지 분명히 한다면, 데이터는 그 답을 찾는 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보이지 않는 칩의 세계를 해부하다



‘노트북 300만 원 시대’가 도래했다. 칩플레이션(Chip-Flation)’으로 인해 CPU, RAM, SSD 등 반도체 가격이 출렁이며, 노트북 공급과 가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월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북6 프로’의 가격은 최대 351만 원으로, 전작 대비 최대 25%가량 증가했다. 작디작은 부품의 하나의 가치가 왜 이렇게까지 치솟는 것일까. 지금부터 그 섬세하고도 복잡한 구조를 함께 살펴보자.

노트북은 크게 ▲CPU(Central Processing Unit) ▲RAM ▲보조기억장치 등이 연산·정보 저장 등을 처리하며 작동된다. 각 장치는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연산과 저장 기능을 수행한다.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CPU가 명령어를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RAM은 필요한 데이터를 연산하고, 보조기억장치는 해당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보관하면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구글에 접속하면 CPU가 사이트를 열도록 처리하고, RAM은 사이트에서 열리는 화면 정보를 잠시 담아 빠르게 보여주며, 보조기억장치는 검색 기록이나 로그인 정보를 보관하는 방식이다.

먼저 CPU는 노트북의 중앙처리장치로 시스템이 작동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실행 과정 전반을 담당하는 핵심 장치다. 다시 말해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수행하며 RAM과 저장장치 사이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전체 시스템의 동작을 제어한다. 프로그램이 전달하는 작업 지시 명령을 읽어 프

그램 실행에 필요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역할도 여기서 이뤄진다. 김형진(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CPU의 성능이 높을수록 여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능력이 향상돼 시스템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CPU가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는 시스템 내부의 제어 신호를 정교하게 조절하는 작업이 선행된다. 이 과정에서 ‘명령어 사이클(instruction cycle)’이 작동한다. 명령어 사이클은 CPU가 하나의 지시인 명령어를 처리하는 기본 절차다. CPU는 명령어 사이클에 따라 프로그램에 포함된 명령어를 순차적으로 처리한다. 먼저 명령어를 인출해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해석한 뒤 데이터 이동을 실행한다. 이러한 절차가 극히 짧은 시간 단위로 반복되면 연산과 데이터 처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그 결과 프로그램이 의도한 기능이 안정적으로 구현된다. 강명근(서울시립대 지능형반도체학과) 교수는 “CPU는 명령어를 초당 수억 번 단위로 불러와 연산을 매우 빠르게 처리한다”고 밝혔다.

CPU가 명령어를 처리하면 ‘RAM’이 데이터를 받아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연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RAM은 컴퓨터가 실행 중인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며 노트북에 탑재된 여러 개의 RAM 사이에서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해석·계산한다. 쉽게 말해 RAM은 CPU의 명령을 빠르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작업대와 같

다. 노트북에는 여러 개의 RAM이 존재하는데, 이 RAM 사이에서 데이터를 서로 빠르게 주고받으며 명령어를 실행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RAM의 성능이 높을수록 더 많은 비트를 동시에 주고 받으며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RAM에 전달된 데이터가 서로 오가며 정확하게 전달되는 과정이 핵심이다. 이때 활용되는 정보 표현 방식이 비트(bit)다. 비트는 데이터를 전압의 세기로 구분하는 0과 1의 디지털 정보로, 컴퓨터가 처리하는 정보의 최소 단위다. 전압이 높은 상태는 1, 전압이 낮은 상태는 0으로 구분되는 형태다. 즉 CPU의 명령을 넓은 여러 개의 작업대에서 동시에 처리한다는 의미다. 강대환(POSTECH 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인터넷 창을 여러 개 띄우거나 문서 작업과 영상 재생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것도 RAM이 충분한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전달된 비트값은 실제 프로그램 동작을 구분하고 실행하는 기준이 된다. 컴퓨터 활용 과정에서 모든 작업은 0과 1의 비트값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RAM은 명령어의 비트값이 서로 같는지 다르지, 특정 조건에 맞는지를 빠르게 비교해 각각의 작업을 구별한다. 구분된 비트값은 명령어를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또 다른 RAM으로 보내진다. 강 교수는 “컴퓨터는 여러 신호를 조합해 새로운 결과를 만들고, 이를 다시 저장하거나 다음 처리에 활용한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또 다른 RAM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비트값은 ‘비트라인(Bit Line)’을 통해 이동한다. 비트라인은 전기 신호가 이동하는 통로로, 전압의 높고 낮은 상태를 실어 나른다. 특정 비트값이 구분되면 비트라인을 따라 흐르며 다른 RAM으로 전해지는 것이다. RAM 내부에서는 이렇게 전달된 전압 상태를 감지해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다시 불러오는 과정에 활용한다. 비트라인은 RAM과 RAM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핵심 경로라고 볼 수 있다. 김 교수는 “비트라인은 RAM을 연결해 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비트라인을 통해 전달되는 전하의 이동은 ‘워드라인(Word Line)’ 신호에 의해 제어된다. 워드라인은 RAM에서 1비트를 저장하는 최소 단위인 특정 메모리 셀(Cell)의 동작 여부를 결정하는 신호다. 비트라인에서 워드라인으로 전압이 전달되면 셀이 전달된 전하를 받아들이거나 내보낸다. 이 과정에서 전하의 상태에 따라 메모리 셀에 저장될 비트값이 결정되고, 최종적으로 노트북에서 어떤 창이 띄워질지 결정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강 교수는 “워드라인은 어떤 셀을 켜지 결정하는 신호”라며 “전하 이동을 통해 비트값이 정확히 기록되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RAM은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임시저장장치이므로 전원이 꺼진 이후에도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 보조기억장치가 활용된다. 대표적인 보조기억장치 중 하나인 ‘SSD(Solid State Drive)’는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를 유지하는 비휘발성 구조로, 시스템의 대용량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저장한다. 프로그램, 사용자 파일 등 컴퓨터 작동에 필요한 핵심 정보가 저장되는 공간으로, 시스템 안정성과 데이터 보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강 교수는 “GB(기가바이트)와 TB(테라바이트)가 높을수록 노트북의 저장 공간이 넓어지고 속도가 빨라진다”고 설명했다.

SSD 저장 원리의 핵심에는 전자를 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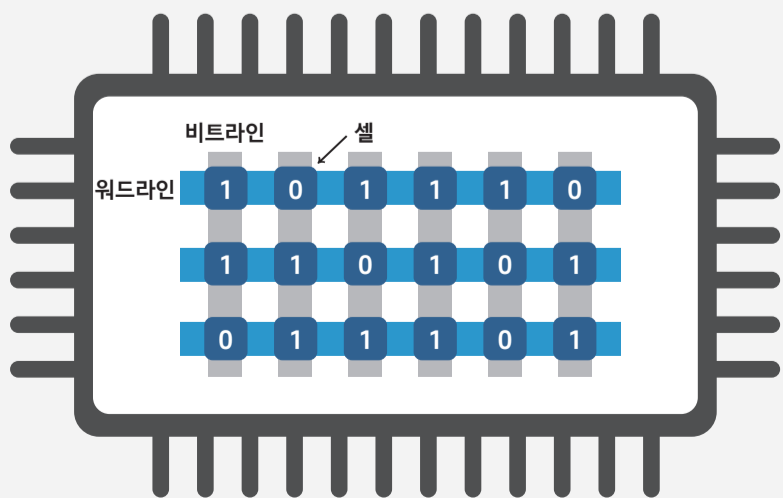
는 공간인 ‘플로팅 게이트(floating gate)’ 구조가 있다. 전자를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잡아 두느냐에 따라 데이터의 유지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전자를 저장해 두기 위해 플로팅 게이트는 본래 전류가 흐르는 전극이지만, 절연체가 둘러싸고 있는 특수한 형태를 갖는다. 전자를 저장할 때는 순간적으로 높은 전압을 가해 전자가 절연층을 넘어 내부 공간으로 들어가게 한다. 이후 사방이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막으로 둘러싸여 있어 전자가 밖으로 빠져나오기 어렵다. 전원이 꺼져더라도 절연막이 전자의 이동을 막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 남아 있는 전자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며 데이터가 보존되는 것이다. 강 교수는 “SSD는 전자를 물리적으로 가두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섬세한 작업 기술로 인해 공급망에 한계가 있어 반도체 가격은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에서는 공급망 불안정성을 줄이려 생산 거점을 분산하고 현지 생산 공장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김 교수는 “반도체 가격 상승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해외 공급망 구조와 직결된다”며 “기업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 거점을 분산시키는 등의 점진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발 비용을 낮추면서 성능을 높이는 차세대 칩 개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데이터 저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속도 등의 한계를 개선하거나, 전자의 성질 변화 특성을 활용하는 기술을 통해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동시에 높이려는 시도다. 강 교수는 “RAM에 일부 연산 기능을 추가하는 PIM(Process In Memory)이나 CIM(Copute In Memory)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몇 년 내 일부 분야에서 시범 적용이 이뤄질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밝혔다.

임지민 기자 seeshuron@naver.com

비트라인과 워드라인의 구조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사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삼 학 송 ·

반복된 배제에 성장은 없다

지난 1월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안이 최종 확정됐다. 그중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은 2023년과 2024년 각각 5%, 지난해 7% 인상된 데 이어 올해도 2.95%가 추가로 올랐다.

이번 인상은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대학본부 및 학생대표가 만장일치로 찬성한 결과다. 대학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등록금 조정이 불가피했을 가능성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문제는 인상의 불가피성보다 인상 전후의 과정에 있다. 더욱 큰 부담을 지게 된 이들의 의견이 어떤 방식으로 수렴됐는지, 그리고 추가로 확보된 재원이 어떤 기준에 따라 재배분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충분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대학본부는 등록금 인상과 함께 사용계획을 공개했다. 교육 인프라 개선, 장학금 확대, 학생지원비 확대가 주요 항목으로 제시됐고, 학생 복지 공간 확충과 신입생 대상 행사 강화와 같은 사업도 포함됐다. 다만 해당 계획은 어디까지나 '한국인 학생 등록금 인상분'을 중심으로 한 계획이다. 정작 올해 외국인 유학생이 부담한 인상분이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배분되는지, 이를 통해 무엇을 개선하겠다는지에 대한 별도의 설계도와 근거는 확인할 수 없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의사결정 반영 구조에 있다.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사실상 학생대표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2023학년도 이전에는 외국인 유학생이 각 트랙·학과(부)에 분산돼 있었고, 2023학년도부터 글로벌인재 '학부'로 묶였으나, 여전히 자치 구조는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 올해 글로벌인재 '대학'으로 승격됐지만 본지 취재 결과, 이번 등록금 인상 심의 과정에서 대

학본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의견을 수렴한 절차는 확인되지 않았다. 등록금 인상 관련 사전 안내 또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사회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제41대 총학생회 '온(ON:穩)'은 등록금 인상을 앞두고 '2026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 요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설문에서 소속을 선택하는 항목에는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디자인대학, IT공과대학, 창의융합대학 등 5개 단과대학만 기재돼 있었다. 결과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은 인상 논의에서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으로 '제외'되는 방식으로 취급됐다.

우리를 넘어 씩씩함이 남는다. 이번 등록금 인상 전 과정을 되짚어보면 외국인 유학생이 애초에 동일한 '학생'의 범주 안에서 논의되고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같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같은 등록금을 부담하는데도 언제나 논의의 중심에서 비켜나 있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교육의 동등한 주체가 아니라 재정의 한 항목처럼 취급된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본교 입학 시 한국인 학생은 '정원내(內)', 외국인 학생은 '정원외(外)'로 구분된다. 등록금 인상에 있어서는 내외를 가리지 않았지만, 결정의 구조에서는 분명한 선이 그어졌다. 내와 외라는 그 한 글자의 차이가, 무의식적으로는 중심과 주변을 가르는 선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학은 분명히 답해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은 학교의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이승희 편집국장



청소년 독립언론 '토끼풀'과 '이음'의 '신문법', '잡지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이 지난 2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렸다. 이들은 미성년자의 언론 활동을 제한하는 현행 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공격 발언과 사회적 의사 형성은 단지 특정 세대에게 부여된 특권이 아니다. 미래를 이끌어 갈 이들의 참여가 없는 사회는 공허한 담론장일 뿐이다. 이제는 이들이 우리 사회 한가운데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도의 빗장을 풀어야 할 시점이다. 임지민 기자 seeshuron@naver.com

기자수첩 경쟁은 누구에게나 허락되기에

올림픽의 환호가 채 가시기도 전, 또 하나의 무대가 조용히 막을 올린다. 오는 6일 개막하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남매초 동계패럴림픽(이하 패럴림픽)'이 그 주인공이다. 그러나 수년째 우리 국가대표 선수단의 세대교체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로 남아 있다. 실제로 지난 2022 베이징 동계패럴림픽의 대표팀 평균 연령은 37.6세로 나타났다.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어 늦은 나이에 선수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 하더라도 적지 않다.

『국민체육진흥법』과 『스포츠산업 진흥법』은 국가가 체육을 진흥하고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을 명시한다. 이에 따라 전문체육인은 기업, 지자체 등이 선수를 고

용해 지원하는 '실업팀'에 속해, 일정한 급여와 훈련 여건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 스포츠 선수는 '선수'로 대우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실업팀현황」 통계에 따르면, 실업팀에 소속돼 안정적인 급여를 받는 선수는 단 3%에 불과했다. 높은 진입장벽과 고비용의 전문 장비는 장애인 선수에게 큰 걸림돌이 즉 신인 선수가 유입 혹은 성장할 수 없는 환경이다. 실업팀, 훈련 시설 등 인프라 부재는 선수 수급을 넘어 장애인 스포츠 전반을 퇴보시킬 수 있다.

올림픽은 스포츠라는 공통분모 아래, 세 계인을 하나로 묶는다. 문화와 국적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같은 순간에 숨을 고르고, 같은 장면에 환호하는 경험은 우

리를 분명한 공동체로 연결한다. 이러한 '올림픽 정신'은 특정 집단에게만 허락된 가치가 아니다. 장애인 선수 역시 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 선수는 이름으로 같은 조건 위에 설 때, 스포츠가 말하는 '함께'라는 언어는 예외 없이 완성될 수 있을 테다.

이에 기반해 장애인 실업팀 창단 지원 등으로 장애인 선수의 직업적 지위를 보전해야 한다. 규정에만 그치지 않고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의 지원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의 실현이자 스포츠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이다. 이들의 권리가 보장될 때, 비로소 우리 사회가 진정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김산 기자 kimsan060421@naver.com

낙산에 올라 밥상 위 단절 : 대한민국 혼밥 공화국의 내면

대한민국은 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밥상 위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을까? 2025년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의 세계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타인과 함께 하는 저녁 식사 횟수는 주 1.6회에 불과하다. 142개국 중 135위, G20 국가 중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남아프리카공화국(5.0회), 호주(4.9회)와 비교해도 격차가 크다. 한국은 일주일에 다섯 번 이상 혼자 저녁을 먹는 '혼밥 공화국'이 됐다.

이 같은 변화의 근간에는 인구 구조의 변화가 있다. 2024년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전체의 35.5%로,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혼자 산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19.1%), 29세 이하(18.6%)가 특히 높게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주된 이유는 배우자 사망(31.9%), 학업·직장(22.4%), '혼자 살고 싶어서'

(14.3%)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MZ세대의 개인주의적 라이프스타일은 식사마저 혼자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만들었다.

혼밥이 단순한 식사 방식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한국 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연구에 따르면, 하루 두 끼 이상 혼밥을 하면 대사증후군 위험이 1.3배, 여성은 1.5배 높아진다. 하루 세 끼 모두 혼밥을 하면 고혈압·우울증 위험도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혼밥족은 라면, 빵 등 간편식에 의존해 영양 불균형에 취약한 특성을 갖기도 한다.

그러면서 세계행복보고서는 식사 공유가 행복과 직결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한국은 점심까지 합해도 타인과 식사하는 횟수가 주 4.3회에 그쳐, 중남미(8.8회)나 서유럽(8.3회)보다 훨씬 적다.

결국 식사는 단순한 식사 행위를 넘어, 건강 유지의 방식이자 행복과 사회적 연결을 매개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식품영양학 전문가들은 "혼밥이 늘어날수록 사회적 고립감은 증가하고, 공동체 의식은 약화된다. 식사는 단순한 음식 섭취가 아니라 타인과 연결고리다"라고 경고한다. 함께 식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대화와 정서적 교류는 개인의 정서 안정과 소속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제 혼밥은 단순한 선택을 넘어, 공동체의 해체를 상징한다. 개인의 자유는 존중하되, 식탁을 함께 나누는 행위의 가치를 되새겨야 한다. 혼밥이 일상이 되기 전에, 함께 먹는 식사의 의미를 사회가 다시 고민해야 할 때다.

하호철(매선 2)

의화정 싱가포르, 실무형 SWAI 산학협력 확대

본교 SW중심대학사업단이 2025년 11월 8~16일 싱가포르에서 운영한 SW·AI 산학협력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국내 대학 교육의 새로운 진화 방향을 보여준 사례다. 본 연수는 단순 견학이 아닌, 글로벌 기업·대학·시장을 하나의 교육 생태계로 연결해 학생들이 실무 중심의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을 수행하도록 설계됐다. 팀 구성과 사전 조사, 현장 보고서 작성, 기업 과제 수행과 최종 발표까지 전 과정을 구조로 운영해 실제 산업 문제 해결 경험을 제공했다.

프로그램의 중심축은 아시아 대표 퀀트 트레이딩 기업 프레스토 랩스(Presto Labs)였다. 학생들은 기업의 데이터 처리 구조, 리스크 관리 체계, 초저지연 트레이딩 기술을 분석하고 미션을 수행했다. 본교는 이를 포함한 6개 글로벌 기업과 MOU를 체결해

지속 가능한 국제 산학협력 플랫폼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AWS Singapore, Grab 본사, 현대차 싱가포르 혁신센터(HMGICS)에 방문해 데이터 산업, 모빌리티, 클라우드 기반 AI생태계를 직접 확인했으며, 싱가포르 국립대학(NUS), 난양공과대(NTU) 교수진과의 교류를 통해 AI윤리, 기술 정책 등 학문적 논의도 병행했다. Singapore FinTech Festival 참여는 글로벌 금융·AI 트렌드를 체험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산업 현장을 기반으로 정보 분석-문제 정의-데이터 기반 모델 구축-성과 발표까지 이어지는 산업적 사고 체계를 학생들이 직접 경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더불어 존 켈러의 ARCS 모델을 반영해 학생들의 학습 동기과 성취를

강화하는 교육을 설계했다. 해당 모델을 적용해 학생들이 '관심(Attention) - 관련성(Relevance) - 자신감(Confidence) - 만족감(Satisfaction)'을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를 발전시킨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 프로그램은 교실 중심 교육에서 현장 중심 문제 해결 교육으로의 전환, 형식적 협력을 넘어 실제 프로젝트와 포트폴리오로 이어지는 산학협력 모델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된다.

싱가포르에서 우리가 보여준 것은 국제 협력 기반의 SW·AI 학습 생태계였다. 변화 속도가 빠르고 기술의 경계가 흐려지는 시대, 학생들이 세계를 교과서 삼아 배우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번 프로그램은 앞으로 더 넓고 깊은 글로벌 SW·AI 협력 구조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오세종(시용융학과) 교수

낙산만평 김해윤 기자 purple.pea06@gmail.com

한성대신문 오피니언면은 학내구성원의 참여로 이뤄집니다.

〈한성대신문〉은 교수님의 동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면에 실을 동정이 있으면 한성대신문사(내선 4186)로 문의바랍니다.

한성대신문사 제60기 수습기자 모집

한성의 내일을 쓰는 문장, 지금 당신의 손에서!

01.19 - 03.10(화) 23시 59분까지



아이템 회의

인터뷰 및 사진 촬영

비교과포인트

원고료 지급

레이아웃 디자인

초고 작성 및 퇴고

개인 책상 및 PC 제공

활동비 지원

교정 및 조판